

석사학위논문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연구

-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재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노정은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연구

-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Emotional Vocabulary
by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재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노정은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연구

-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Emotional Vocabulary
by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재 희

최재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은 희 (인)

심 사 위 원 김 윤 주 (인)

심 사 위 원 노 정 은 (인)

국 문 초 록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재 희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감정은 인간의 활동에 근거가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소통은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감정 교류의 중요성은 크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언어 발달이 특정 시점에 이르면 부모인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며, 이때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교육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녀의 사회화 및 교육의 역할이며, 이 중 자녀의 정서발달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본고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의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감정 어휘 활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어학 및 한

국어교육 분야의 감정 어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야별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논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한국어 감정 어휘의 기준을 세워 그 범주를 한정하고, 한국어 감정 어휘의 분류 기준으로 의미 영역에 따른 6가지 감정 종류를 설정했으며,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감정 어휘가 기능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 4가지를 설정하였다. 또,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어려움에 대해 살피고,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3장에서는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학습자 요구조사와 교재 분석을 진행했다. 학습자 요구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높은 중요도를 느끼고 있는 점과 부정적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 결혼이민자 대상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되는 학습 감정 어휘와 자녀와의 감정 관련 대화문이 부족한 점,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 맥락 및 감정 종류를 다루는 감정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육용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선정하였다. 교수 방안으로는 과제 중심 교수법과 TTT 모형을 적용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부모 역할 중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자녀교육, 어휘 활용 교육, 감정 어휘, 감정 어휘 목록,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능, 과제 중심 교수법, TTT 모형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3
II. 이론적 기반	6
2.1 한국어 감정 어휘	6
2.1.1 한국어 감정 어휘의 범주 및 분류	6
2.1.2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 어휘	14
2.2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21
2.2.1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21
2.2.2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중요성	23
III.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요구조사 및 교육 현황	26
3.1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요구조사	26
3.1.1 조사 대상	26
3.1.2 조사 절차	26
3.1.3 조사 결과	31
3.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	37
3.2.1 분석 대상	37
3.2.2 분석 기준	39
3.2.3 분석 결과	41
IV.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59
4.1 교육 내용 선정	59
4.1.1 교육용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 선정	59
4.1.2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설정	61
4.2 교육 방안	63
4.2.1 교수학습 절차	63

4.2.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실제	66
V. 결 론	71
참 고 문 헌	73
부 록	77
ABSTRACT	81

표 목 차

[표 2-1] 인지 어휘, 동작 어휘, 상태 어휘, 감정 어휘의 변별	8
[표 2-2] 연구자별 감정 의미 분류	12
[표 2-3]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선정 목록	14
[표 2-4]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16
[표 2-5] 연구자별 정서지도 행동 유형	18
[표 2-6] 정서사회화 행동과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	20
[표 3-1] 예비조사 질문지의 구성	28
[표 3-2] 본조사 질문지의 구성	30
[표 3-3] 조사 결과(인적사항 영역)	31
[표 3-4] 조사 결과(양육 영역)	32
[표 3-5] 조사 결과(정서적 상호작용 영역)	33
[표 3-6] 조사 결과(감정 어휘 영역)	34
[표 3-7] 분석 대상 교재	37
[표 3-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 분석 기준	40
[표 3-9]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 분석 결과	41
[표 3-10]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기쁨) ..	42
[표 3-11]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슬픔) ..	44
[표 3-1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공포) ..	45
[표 3-13]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분노) ..	46
[표 3-14]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좋음) ..	47
[표 3-15]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싫음) ..	48
[표 3-16]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	50
[표 3-17]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	51
[표 3-18]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 화문 제시 양상	52

[표 3-19]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53
[표 3-20]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55
[표 3-21]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56
[표 4-1] 한국어 감정 어휘 등급 목록	60
[표 4-2] 교육용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	61
[표 4-3]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설정	61
[표 4-4] 교수학습 절차 및 교육 내용 예시	66
[표 4-5] 단원 학습 내용	67
[표 4-6] 수업 개요	68
[표 4-7] 수업 모형	69

그림 목 차

[그림 2-1] 감정 어휘 검증 틀	6
[그림 2-2] 감정 발생에서의 인지와 감각	7
[그림 3-1] 요구조사 절차	26
[그림 4-1] TTT 모형의 과정	65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야 하며, 이들이 가장 먼저 적응하고 자리 잡아야 하는 사회는 한국의 가정이다. 감정은 인간의 활동에 근거가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소통은 기초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감정 교류의 중요성은 크다. 결혼이민자는 아내, 남편, 부모, 며느리, 사위로서 가족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감정 소통 상황 속에 놓이는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가족과의 감정 교류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감정 어휘 교육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박나리, 2015).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며 언어 발달이 특정 시점에 이르면 부모인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된다. 이때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자녀교육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한국어가 서툰 양육자로 인해 언어발달 장애를 종종 겪으며, 취학 후에도 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숙제를 거의 돌봐주지 못해 학습 부진 현상을 겪는다(박선영, 2006). 이렇게 청소년으로 성장한 후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와 자녀 간 대화도 어려워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현은애, 2009).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녀의 사회화 및 교육의 역할이며(유옥, 2020), 이중 정서교육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이러한 정서 상태를 명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를 사회적 상황과 연관

시킨다(정옥분 외, 2018).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자녀의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가족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 어학연수생이나 대학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의 내용은 이들이 자주 접하는 장소, 주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허용, 2009a)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 맥락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3장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요구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감정 어휘 활용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고의 논의의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정 어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정 어휘 교육 연구이다. 후자는 일반적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 연구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정 어휘 연구에는 김은영(2004), 최석재(2012), 유현경(2018), 이민우(2020) 등이 있다. 김은영(2004)에서는 한국어 감정 동사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통사적 특성 및 의미적 특성을 밝혔다. 감정 동사가 가지는 통사 특성으로 ‘주어 제약’, ‘주격 중출’, 통사적 결합 양상 등을 밝혀, 감정 동사의 의미를 밝히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감정 동사의 의미 영역을 설정하고, 감정 동사의 의미적 특성인 ‘의미 연결성’에 주목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 동사들의 연결 양상을 고찰하였다. 최석재(2012)에서는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가 해당 어휘의 부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의미 분포, 의미 유형, 정도성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감정의 특성인 다양성과 정도성에 주목하여, 관용 표현의 주요 구성 성분인 체언과 용언이 감정 의미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혔다. 유현경(2018)에서는 한국어 감정용언의 정의와 외연을 살피고, 하위 유형으로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화자가 감정의 주체인 화자 중심 감정용언과, 주어가 감정의 주체인 주어 중심 감정용언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그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밝혔다. 이민우(2020)에서는 감정어의 사용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감정어 의미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정 어휘 교육 연구 중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 연구를 살펴겠다. 해당 선행연구에는 한국어 감정 어휘의 유의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강현화(2005), 서희정(2010), 이효정(2016), 손달임(2019), 교육용 한국어 감정 어휘를 선정 및 분류한 이미지(2012), 이효정(2015), 이숙진(2018), 그 외 이지영

(2009), 문금현(2012), 노정은·장미정(2016) 등이 있다.

강현화(2005)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변별 교수 자료를 제안하였다. 개별 어휘의 의미와 계열적 관계로는 유의관계 감정형용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통사적 정보가 유의관계 변별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 유의어 간의 어휘 교수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빈도나 뜻풀이 사용 빈도 등의 통계적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희정(2010)에서는 중급단계 어휘인 ‘아쉽다’와, 유의어인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용 상황과 주로 다루어지는 소재, 통합관계를 분석하여 ‘아쉽다’ 군의 감정형용사를 제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효정(2016)에서는 유의 관계에 있는 감정 어휘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를 분석하여 본질적인 의미 특성과 형태 통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유의어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손달임(2019)에서는 한국어의 감정표현 어휘 중 ‘즐거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각 어휘의 변별적 의미를 살피고 그 통사적 사용 맥락을 비교, 분석하여 유의관계의 어휘를 변별하는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미지(2012)에서는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를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의 관계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한국어 감정 어휘의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각 감정표현 어휘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밝혔으며, 이들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이효정(2015)에서는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어 분야와 한국어 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감정 어휘 196개를 추출하고 이들을 난이도에 따라 6단계로 등급화하였으며, 형식과 의미 측면에서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숙진(2018)에서는 감정형용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관련 보고서와 한국어 능력시험을 분석하여 교육용 감정형용사 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의미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지영(2009)에서는 한국어 감정 표현의 특성과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내용 구성 방향과 방법 구성 방향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문금현(2012)에서는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를 긍정적인 감정표현,

부정적인 감정표현, 중립적인 감정표현으로 삼분한 후 다시 하위 유형의 어휘 장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분류한 감정표현 어휘를 고빈도 결합구성을 바탕으로 학습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감정 표현 말하기 교육을 위한 담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노정은장미정(2016)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지적, 언어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교육 선행연구는 방지선(2014), 박나리(2015), 김경자(2017)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고, 모두 석사학위논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지선(2014)에서는 감정 동사와 형용사 중 부정적 감정 어휘에 주목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내용을 학습 단계별로 정리하였으며, 실제 교실에서 사용 가능한 구체적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박나리(2015)에서는 감정표현 어휘 교육에서 신체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체언어를 활용한 교수법으로 전신반응교수법의 장점을 수용하여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실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경자(2017)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교재에 제시된 감정 표현이 학습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합한지 살피기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교재에서 배운 감정 표현을 실제로 잘 사용하는지를 설문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감정 어휘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감정 어휘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 및 교육 방안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유의어의 의미 변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감정 어휘 목록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 중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밝힌다.

Ⅱ. 이론적 기반

2.1. 한국어 감정 어휘

2.1.1. 한국어 감정 어휘의 범주 및 분류

감정 어휘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의미한다. 감정 어휘는 그 변별이 쉽지 않은데, 감정 어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어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감정 어휘의 범주 설정의 절차를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다룰 한국어 감정어휘의 범주를 설정할 것이다.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표현 어휘를 판단하는 의미적 기준으로 감정표현 어휘의 검증 틀을 제안한다. 아래의 검증 틀은 많은 연구들에서 감정표현 어휘의 변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한 마음이 {생기다, 들다} 마음{이, 에} ~ (으)ㄴ 상태

[그림 2-1] 감정 어휘 검증 틀 (김은영, 2004)

감정의 발생은 비의도적인 것이므로 감정표현 어휘는 ‘나도 모르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감정은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마음이’, 또는 ‘마음에’라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검증 틀의 기본 요지이다.

이미지(2012)에서는 감정어휘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감정의 발생에 자극과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래의 그림으로 제시했다.



[그림 2-2] 감정 발생에서의 인지와 감각(이미지, 2012: 24)

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의 영역은 ‘알다’, ‘판단하다’의 어휘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의 영역은 ‘아프다’의 어휘로, 공포를 느끼는 감정은 ‘무섭다’, ‘두렵다’의 어휘로, 신체적 변화로서 나타나는 감각 또는 행위의 영역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춡다’, ‘떨다’, ‘울다’의 어휘로 표현될 수 있다.

이효정(2015)에서는 감정 어휘와 인지 어휘, 동작·상태·모습을 표현하는 어휘가 구분되어야 함을 밝혔다.¹⁾ [그림 2-2]의 어휘를 이효정(2015)의 분류에 따라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이효정(2015)에 따르면 인지어휘, 동작 어휘, 상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인지 어휘: 감정의 발생은 비의도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나도 모르게’, 또는 ‘마음에’와 같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각이나 인지 어휘는 감정 어휘에 포함될 수 없다

예) 결심하다, 다짐하다, 민다, 반성하다, 용서하다, 의심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주의하다, 참다 등

동작 어휘: 감정 어휘는 ‘상태성’을 띤다. 감정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감정 어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성을 나타내는 어휘는 감정 어휘와 구분된다.

예) 깔깔대다, 깔깔하다, 노발대발하다, 놀라다, 눈물바다, 눈물범벅, 눈물짓다, 대성통곡, 덩실덩실, 떨다, 떨리다, 망설이다, 몸서리치다, 무시하다, 발끈하다, 방긋, 벅글거리다, 벅긋하다, 뽀로통하다, 분풀이를 하다, 불평하다, 빈정거리다, 빠치다, 싱글거리다, 싱글벙글하다, 싱긋싱긋, 안절부절못하다, 엉엉, 용서하다, 옥하다, 울고불고하다, 울다, 울먹이다, 웃기다, 웃음꽃, 웃음바다, 자책하다, 조심스럽다, 책망하다, 축하하다, 포기하다 등

상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 감정은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성이 있는 ‘상태’와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도 감정 어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 놀어지다, 당당하다,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붉으락푸르락하다, 비쭉비쭉하다, 소름, 쉽다, 어수선하다, 익숙하다, 자유롭다, 지치다, 쪼들리다, 초라하다, 친하다, 쾌적하다, 혼 혼하다 등

〈표 2-1〉 인지 어휘, 동작 어휘, 상태 어휘, 감정 어휘의 변별

분류	인지 어휘	동작 어휘	상태 어휘	감정 어휘
어휘	알다 판단하다 아프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떨다 울다	춡다	무섭다 두렵다

‘알다’, ‘판단하다’, ‘아프다’ 등은 인지 어휘,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떨다’, ‘울다’는 동작 어휘, ‘춡다’는 상태 어휘로 감정 어휘 ‘무섭다’, ‘두렵다’와 변별된다.

방지선(2014)에서는 감정어휘의 범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제시한다.

1. 어휘의 의미가 감정을 나타낸다.
2. 검증틀 ‘나의 마음이 ○○○ 상태이다’ 또는 ‘내 안에서 ○○○마음을 느끼다’를 만족시킨다.
3. 어휘의 품사를 동사와 형용사로 한정한다.

본고의 감정 어휘의 범위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즉, [그림 2-2], 〈표 2-1〉의 ‘무섭다’, ‘두렵다’와 같은 감정 영역의 어휘이며, [그림 2-1]의 검증틀로 검증 가능한 어휘임을 밝힌다. 또한 감정의 중심은 주체에 있고(방지선, 2014), 감정 표현은 대체로 서술어 형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김경자, 2017) 감정 형용사와 감정 동사로 교육용 감정 어휘를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어 감정 어휘의 분류이다. 감정 어휘의 분류를 위해서는 분류 기준이 필요한데, 의미, 형식, 등급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의미 기준에 초점을 맞춰 선행 연구의 한국어 감정 어휘 분류를 살피고, 기본 감정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감정 어휘를 분류할 것이다.

감정 어휘의 분류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감정의 의미 영역에 따라 감정 어휘의 분류가 이루어졌다. 김은영

(2004)에서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연접성 때문에 의미 영역의 분류가 명료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의미 연접성으로 인해 감정동사의 의미 영역 설정이 가능함을 밝혔다. 의미의 연접성은 감정어휘들 간 다양한 유의어를 낳는데, 유의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공유하는 의미를 기본 의미 영역으로 설정하여 해당 의미 영역 안에 같은 의미 부류의 감정 동사를 묶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의 의미 영역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김은영(2004), 방지선(2013)에서는 각각 만족/불만족, 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의 2가지 영역으로 감정을 분류했다. 김은영(2004)은 사단칠정(四端七情)²⁾을 기준으로 감정의 의미 영역을 분류하였다. 사단칠정(四端七情) 중 인지동사에 작용하는 정서를 뺀 때, 각각 ‘동정’, ‘수치심’,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좋아함’, ‘싫어함’, ‘바람’의 감정임을 밝혔다. 이중 ‘기쁨’, ‘좋아함’은 만족의 의미를 포함, ‘동정’, ‘수치심’, ‘노여움’,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은 불만족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감정동사의 의미 영역을 크게 만족과 불만족의 의미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방지선(2013)에서는 ‘쾌’를 기준으로 [+쾌]의 의미자질을 지닐 경우 긍정적 감정으로, [-쾌]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경우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8가지의 기본 감정을 설정하여, 긍정적 감정에는 ‘기쁨’, ‘바람’, ‘좋아함’을, 부정적 감정에는 ‘노여움’,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싫어함’을 배치하였다.

문금현(2012), 이숙진(2018), 강해우 외(2019), 강진숙(2021)에서는 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중립(기타) 감정의 3가지 영역으로 감정을 분류했다. 문금현(2012)에서는 Krzeszowski (1990:138-143)의 가치 평가에 따른 어휘목록의 범주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나누고, 양쪽에 소속시키기 어려운 감정을 중립적 감정으로 두어 삼분하였다. 긍정적 감정에는 ‘기쁨’, ‘만족’, ‘호의’를, 부정적 감정에는 ‘불쾌’,

2) 김은영(2004)은 사단칠정(四端七情),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동사의 의미 영역을 분류하였다. 그런데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서,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겸손함을 갖는 정서로 모두 인지동사에 작용하는 정서이다. 때문에 이들을 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을 감정 의미 영역으로 두었다.

‘괴로움’, ‘반감’, ‘실망’, ‘외로움’을, 중립적 감정에는 ‘기대’, ‘놀람’을 배치하였다. 이숙진(2018)에서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긍정과 부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긍정, 부정의 대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긍정적 감정에는 ‘경이’, ‘기쁨’, ‘동정’, ‘만족’, ‘애정’, ‘흥미’를, 부정적 감정에는 ‘걱정’, ‘공포’, ‘노여움’, ‘당황’, ‘미안함’, ‘미움’, ‘부끄러움’, ‘불편함’, ‘슬픔’, ‘싫음’, ‘아쉬움’, ‘지루함’을 배치하였다. 양쪽에 속하지 않는 ‘바람’의 감정을 기타 항목으로 설정하여, 긍정, 부정, 기타의 총 3가지 분류를 주장하였다. 강해우 외(2019)에서는 카드 소팅(Card Sorting)³⁾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 어휘가 수집된 기존 문헌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의 감정 어휘 체계를 3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40개의 소분류로 구축하였다. 대분류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중립적 감정으로 구분했으며, 긍정적 감정에는 ‘기쁨’, ‘호감’, ‘만족’, 부정적 감정에는 ‘분노’, ‘공포’, ‘놀람’, ‘슬픔’, ‘복잡’, ‘아쉬움’, ‘혐오’, 중립적 감정에는 ‘갈망’, ‘고요’, ‘생소’의 중분류를 배치하였다. 강진숙(2021)에서는 감정의 의미 영역을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하고,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을 중립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감정에는 ‘기쁨’, ‘사랑’을, 부정적 감정에는 ‘분노’, ‘미움’, ‘두려움’, ‘슬픔’, ‘긴장’을, 중립적 감정에는 ‘놀람’, ‘부끄러움’을 배치하였다.

이미지(2012)와 Dursun-ESSIZ(2020)에서는 감정의 의미 영역을 기쁨, 슬픔, 공포(두려움), 분노(노여움)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미지(2012)에서는 모든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을 감정의 기본 의미 영역으로 두었다. 이는 Kemper(1987)의 견해를 따른 것인데, 그 근거로 이들 네 가지 감정이 인간 발달 초기에 나타난다는 것, 뚜렷한 생리적 변화 양상과 결합된다는 것,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것, 대부분의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들었다. Dursun,ESSIZ(2020)에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 주로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 감정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징에 따라 기본 감정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김정현(2007)과 박나리(2015)에서는 감정의 의미영역을 6가지로 분류하였

3) 참여자가 여러 카드에 작성된 항목을 그룹화함으로써 일련의 개념에서 계층적 구조를 찾아내는 기법.(강해우, 2019)

으나, 그 영역은 각각 기쁨, 슬픔, 좋음, 싫음, 불안함, 부끄러움 /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분노, 공포로 다르다. 김정현(2007)에서는 中村 明(1979)의 감정어 분류인 ‘기쁨’, ‘슬픔’, ‘노여움’, ‘무서움’, ‘부끄러움’, ‘좋음’, ‘싫음’, ‘초조함’, ‘편함’, ‘놀람’의 10가지 분류 체계를 참고하였다. 여기에서 ‘노여움’을 ‘싫음’에 포함시키고, ‘무서움’과 ‘초조함’을 ‘불안함’으로 합쳤으며, ‘편함’을 ‘좋음’에 포함시켜 ‘기쁨’, ‘슬픔’, ‘좋음’, ‘싫음’, ‘불안함’, ‘부끄러움’의 감정 영역을 주장했다. 박나리(2015)에서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주장한 Ekman(1972)의 견해를 받아들여, ‘기쁨’, ‘놀람’, ‘슬픔’, ‘공포’, ‘혐오’, ‘분노’의 6가지 감정 분류를 참고하였다. 이중 동양인의 특성상 ‘놀람’과 ‘공포’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두 감정을 ‘공포’로 통합하였고, ‘혐오’의 유형을 ‘싫어함’으로 변경, ‘싫어함’의 반의적 개념으로 ‘좋아함’을 추가하여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분노’, ‘공포’의 감정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민우(2020)에서는 감정어의 말뭉치 문맥을 추출하여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기본 감정 영역으로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부끄러움’, ‘그리움’, ‘외로움’, ‘두려움’의 8가지를 설정하였다. 손선주 외(2012)에서는 Ekman(1971)의 6가지 기본감정인 ‘기쁨’,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놀람’에 HCI(Human-Computer Interface)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 범주인 ‘흥미’, ‘지루함’, ‘통증’을 포함하여 9가지의 감정 영역인 ‘기쁨’,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놀람’, ‘흥미’, ‘지루함’, ‘통증’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별 감정 의미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연구자별 감정 의미 분류

연구자	감정 의미 분류	분류 개수
김은영(2004)	만족(기쁨, 좋아함), 불만족(동정, 수치심, 노여움,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	2가지
방지선(2013)	긍정적 감정(기쁨, 바람, 좋아함), 부정적 감정(노여움,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싫어함)	
문금현(2012)	긍정적 감정표현(기쁨, 만족, 호의), 부정적 감정표현(불쾌, 괴로움, 반감, 실망, 외로움), 중립적 감정표현(기대, 놀람)	3가지
이숙진(2018)	긍정적(경이, 기쁨, 동정, 만족, 애정, 흥미), 부정적(걱정, 공포, 노여움, 당황, 미안함, 미움, 부끄러움, 불편함, 슬픔, 싫음, 아쉬움, 지루함), 기타(바람)	
강해우 외 (2019)	긍정(기쁨, 호감, 만족) 부정(분노, 공포, 놀람, 슬픔, 복잡, 아쉬움, 혐오) 중립(갈망, 고요, 생소함)	
강진숙(2021)	긍정적(기쁨, 사랑) 부정적(분노, 미움, 두려움, 슬픔, 긴장) 중립적(놀람, 부끄러움)	
이미지(2012)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Dursun, ESSIZ(2020)	기쁨, 슬픔, 공포, 분노	4가지
김정현(2007)	기쁨, 슬픔, 좋음, 싫음, 불안함, 부끄러움	6가지
박나리(2015)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분노, 공포	
이민우(2020)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부끄러움, 그리움, 외로움, 두려움	8가지
손선주 외 (2012)	기쁨,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놀람, 흥미, 지루함, 통증	9가지

의미 영역이 3가지 이하인 분류는 분류별 감정의 배치가 제각기 다른데, 이는 긍정과 부정, 중립이 주관성이 개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 영역이 4가지 이상인 분류를 살폈을 때, 손선주 외(2012)의 ‘통증’은 본고에서 설정한 감정어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감각에 해당한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 ‘슬픔’, ‘공포’이며, 김정현(2007)과 이민우(2020)를 제외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감정은 ‘분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4가지 이상의 의미 분류 중 ‘불안함’, ‘놀람’은 ‘공포’에, ‘부끄러움’, ‘괴로움’, ‘그리움’, ‘외로움’은 ‘슬픔’에, ‘혐오’, ‘지루함’은 ‘싫음’에, ‘흥미’는 ‘좋음’에 포함 가능한 의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 영역이 4가지 이상인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Kemper(1987)의 기본 감정에 해당하는 감정 영역인 ‘기쁨’, ‘슬픔’, ‘공포’, ‘분노’와,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초기에 배우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험에 대한 일차적 판단에 개입하는 ‘좋음’과 ‘싫음’을 더한 6가지 의미 영역을 감정어휘의 분류 기준으로 두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나리(2015)의 의미 분류와 같다. 그러나 박나리(2015)에서는 감정 영역의 설정을 Ekman(1972)의 감정 분류인 ‘기쁨’, ‘놀람’, ‘슬픔’, ‘공포’, ‘혐오’, ‘분노’에서 시작하여, ‘놀람’과 ‘공포’를 ‘공포’로 통합하고, ‘혐오’를 ‘싫어함’으로 변경한 후 이의 반의적 개념인 ‘좋아함’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분노’, ‘공포’의 6가지 의미 영역을 설정하였다. 때문에 감정 분류의 논리적 전개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감정의 의미 영역을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으로 설정하고, 선행연구와 한국어기초사전을 참고하여 감정 종류에 따른 한국어 감정 어휘의 선정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한 문헌은 김정현(2007), 방지선(2014), 박나리(2015), 이효정(2015),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이다.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감정 종류별 감정 어휘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에서 ‘감정’ 의미범주에 해당하는 동사 및 형용사를 검색하여 공통된 어휘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와 한국어기초사전을 참고하여 선정한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3〉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선정 목록⁴⁾

감정 종류	감정 어휘	개수
기쁨	감사하다, 고맙다, 기뻐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반갑다, 뿌듯하다, 유쾌하다, 자랑스럽다, 즐겁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12
슬픔	가엾다, 괴로워하다, 괴롭다, 그리워하다*, 그립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서글프다, 서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슬퍼하다, 슬프다, 실망하다, 쓸쓸하다, 안타깝다, 외롭다, 우울하다, 죄송하다, 창피하다, 허전하다,	22
공포	걱정스럽다, 걱정하다, 긴장하다, 놀라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9
분노	답답하다, 속상하다, 언짢다, 짜증나다, 화나다	5
좋음	그리워하다*, 놀랍다, 사랑하다, 설레다, 신기하다, 재미있다, 좋다, 좋아하다, 우습다*	9
싫음	귀찮다, 못마땅하다, 밉다, 번거롭다, 부럽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싫다, 싫어하다, 아깝다, 아쉽다, 알밉다, 어색하다, 어이없다, 우습다*, 재미없다, 지겹다, 지루하다,	18
합 계		75

선정 및 분류된 한국어 감정 어휘는 모두 75개이며, 슬픔, 싫음, 기쁨, 공포, 좋음, 분노 순으로 해당하는 어휘의 수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감정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하는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2.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 어휘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내면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정서 교류에서 요구되는 토대를 형성한다(염효진,

4)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어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감정 종류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 중 긍정적 감정 종류(기쁨, 좋음)와 부정적 감정 종류(슬픔, 공포, 분노, 싫음)와 같이 상반되는 감정 종류에 중복 해당하는 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였다.

2015).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표현 및 반응은 자녀에게 정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가 형성하는 정서적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 요인이 된다(halberstatt et al, 1999; 염효진, 2015; 박미선, 2012).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이어가야 한다(염효진, 2015).

아동은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배유림·박영신, 2015). 이러한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 유효순(2007)에서는 정서지능을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정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Goleman(1995)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로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 이입, 대인관계 기술의 5가지 영역을 제안한다.⁵⁾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민감한 정서반응을 보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며(정옥분 외, 2018),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녀는 정서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Bowlby, 1988; Campos et al., 1989) 즉, 자녀의 성공적인 정서지능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풍부한 정서 표현과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정서사회화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정옥분 외, 2018). 정서사회화 이론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능력 획득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은진(2009)에서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관련 행동으로 Eisenberg 외의 구분을 따라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를 제시하였다. 정서표현이란 가정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표출 양식 또는 유형이며, 자녀는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관찰한 후 부모의 정서표현을 모방하게 된다. 이때의 정서표현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정서반응은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부

5) 자기 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시작이다. 자기 조절은 인식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기 동기화는 정서가 동기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참아 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 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여 타인의 감정을 읽어 내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기술은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서 표현 능력이다.(Goleman, 1995)

모의 반응으로, 이때의 반응은 수용적 반응과 통제적 반응으로 나뉜다. 자녀의 정서 표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행동은 수용적 반응에 해당하며, 창피 주기, 비웃음, 꾸짖음 등의 행동은 통제적 반응에 해당한다. 자녀는 부모의 정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정서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학습하게 된다. 정서지도는 자녀가 겪는 정서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개입 행동으로, 이때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지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거나 명명할 수 있고, 자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정서지도를 통해 자녀는 왜 특정 감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정서사회화 행동	내용
정서표현	부모가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표출 양식 또는 유형
정서반응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정서지도	자녀가 겪는 정서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개입 행동

이러한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결과로서, 자녀는 주어진 맥락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서를 표현해 보며 정서조절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박미선, 2012).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당히 할수록, 수용적인 정서반응을 보일수록, 정서지도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살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정서반응과 정서지도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정서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혹은 통제적 반응으로,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양육 태도에 가깝다. 정서지도는 양육 태도인 정서반응의 실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서지도는 자녀의 정서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 행동이다. Gottman 외(1997)에서는 이러한

정지도의 요소로 아동의 정서 지각하기, 아동이 경험한 정서를 가르침의 기회로 인식하기, 아동에게 느껴진 정서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 제공하기, 아동의 정서에 감정이입하여 반응하기, 아동이 문제해결을 하는 동안 제한 설정하기를 제안하였다(박서정, 2004, 재인용). 여은진(2009)에서는 Lagacé-Séguin·Coplan, Ramsden·Hubbard, Lunkenheimer 외에서 밝힌 정서 지도 행동의 유형을 제시했다. Lagacé-Séguin·Coplan(2005)에서는 정서 지도 행동을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공감하기, 유아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 정서단어를 사용하여 정서적 이야기 나누기,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서적 상태 알려주기, 정서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안내하기, 수용적인 정서표현 가르쳐주기, 문제해결 기술 가르쳐주기로 유형화했다. Ramsden·Hubbard(2002)에서는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도 유형을 아동의 정서 인지하기, 정서 수용하기, 정서표현 가르치기로 나누었다(여은진, 2009, 재인용). Lunkenheimer 외(2007)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유형을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도록 알려주는 행동,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 연구자별 정서지도 행동 유형

연구자	정서지도 행동 유형
Gottman 외(1997)	아동의 정서 지각하기 아동이 경험한 정서를 가르침의 기회로 인식하기 아동에게 느껴진 정서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 제공하기 아동의 정서에 감정이입하여 반응하기 아동이 문제해결을 하는 동안 제한 설정하기
Lagace-Seguin·Coplan(2005)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공감하기 유아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 정서단어를 사용하여 정서적 이야기 나누기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서적 상태 알려주기 정서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안내하기 수용적인 정서표현 가르쳐주기 문제해결 기술 가르쳐주기
Ramsden·Hubbard (2002)	아동의 정서 인지하기 정서 수용하기 정서표현 가르치기
Lunkenheimer 외(2007)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도록 알려주는 행동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행동

지금까지 살핀 ‘정서사회화 행동’에 관한 관점을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의사소통 행위’의 차원으로 재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서표현’은 부모가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 표출 양식 또는 유형이므로, 이를 언어적 표현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의사소통 행위의 차원에서는 이를 ‘부모의 감정 표현하기’로 명명하겠다. 다음으로, ‘정서반응’은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으로, 이때 부모의 반응은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 영역에서는 자녀의 감정에 대하여 부모가 알아채고 명명하는데 언어가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를 ‘자녀의 감정 파악하기’로 명명할 것이다. 표현 영역의 경우 자녀의 감정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언어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수용적인 정서 반응이 바람직한 것을 고려하여, 그 의사소통 행위를 ‘자녀의 감정에 공감 나타내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정서지도’는 자녀가

겪는 정서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개입 행동으로, 그 양상의 다양성은 <표 2-5>를 통하여 확인했다. 이를 언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서 지도’는 부모와 자녀가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감정을 소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의사소통 행위를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감정 어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부모는 감정 어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는 감정 어휘를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행동과 언어를 관찰하고, 자녀의 감정이 어떠한지 판단할 때 부모는 해당하는 감정 어휘를 사용할 것이다. 자녀와의 대화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 어휘를 통해 자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는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자녀의 감정에 공감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부모는 감정 어휘를 통해 자녀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녀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거나, 감정에 따른 알맞은 행동을 교육하는 등의 정서지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고가 부모교육이 아닌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감정 소통’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감정 소통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는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감정 어휘가 기능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로 재구조화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정서사회화 행동과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

정서사회화 행동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
정서표현	감정 표현	부모의 감정 표현하기
정서반응	감정 이해	자녀의 감정 파악하기
	감정 공감	자녀의 감정에 공감 나타내기
정서지도	감정 소통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본고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결혼이민자가 감정 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고에서 제안할 교육 방안의 목적임을 밝힌다.

2.2.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2.2.1.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2020년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68,594명이다. 그중 남성 결혼이민자는 30,716명, 여성 결혼이민자는 137,87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82%에 육박한다(통계청, 2020).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결혼 구조와, 자녀 양육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부과하는 한국의 성 역할 구조가 맞물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가족 내에서 주 양육자로 기능하고 있다(김이선, 2010).

또,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곧바로 출산과 양육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주 양육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자녀교육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전형길 외, 2012).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관련 연구를 살폈을 때, 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다. 결혼이민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했다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대부분 낮은 편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더라도 문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자녀가 어릴 때는 의사소통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해 가며 자녀와의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가 커진다. 자녀의 취학 후에는 숙제 돕기, 준비물 챙겨주기 등에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보인다(장덕희, 2008; 현은애, 2009).

둘째, 경제적 문제이다. 국제결혼 부부 중에는 주로 농촌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민자의 많은 비율이 자녀교육에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다문화 가정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은 일반 가정의 절반의 수치이며, 이러한 격차는 자녀가 취학하며 더욱 확대될 수 있다.(장덕희, 2008)

셋째, 자녀의 언어 발달 문제이다. 현은애(2009)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

민자는 자녀의 한국말 미숙을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실제적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교사 역시 자녀의 언어발달 미숙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어가 서툰 부모의 교육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넷째, 자녀의 정서 사회적 문제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힘들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또한,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장덕희, 2008)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자녀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 주는 끈이며, 적응을 독려하는 동기로 여긴다(나동석·박종인, 2008).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김영주·김연희(2011)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부모교육 요구조사 결과 이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영역 중 언어발달, 신체건강, 정서발달 영역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음을 밝혔다.

이 중 본고에서는 정서발달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떠한 사회계층에서도 결국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이며(이기숙, 2012),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감정발달 및 감정 표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정옥, 2020).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일수록 사회·정서적 발달이 촉진된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 부모와 가족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영주, 김연희, 2011).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중 정서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공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2.2.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중요성

본 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교육 선행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살피고, 결혼이민자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결혼이민자가 감정 어휘를 사용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은 문금현(20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금현(2012)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감정표현과 관련된 실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었던 상황이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하여 물었다. 결혼이민자가 답한 감정 표현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대화 상대별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에게 화가 났을 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배우자에게 화가 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또, 배우자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때,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집안일을 함께 하지 않을 때 속상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과 함께 살며 느끼는 생활 속 불편함과 서운함을 표현 못하는 것,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시댁 식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도 못해 답답하고 힘든 점, 시부모님이 사투리 화자인 경우 이를 알아듣기 힘든 점 등이 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거나 숙제를 도와주지 못했을 때,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웃과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병원, 어린이집, 보건소, 은행 등의 관공서에서 자세한 감정 표현을 못 해 힘든 경험 이 있다. 또,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문화 차이로 인한 감정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박나리(2015)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감정 어휘 사용 및 학습 관련의 어려움을 밝혔다. 감정 어휘 사용 관련 어려움으로는 이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끊임 없는 감정 소통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

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음을 들었다. 감정 어휘 학습 관련 어려움으로는 감정이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한국어에 직관이 없는 외국인이 학습하기 쉽지 않음을 들었다. 감정 어휘는 모국어 번역과 1:1로 대응하지 않으며, 어휘 학습에서 흔히 쓰이는 정의적 개념 제시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초급 감정 어휘인 ‘기쁘다’와 ‘슬프다’를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쁘다 :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슬프다 :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감정 어휘는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닌 마음의 상태이므로, 그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 또, 결혼이민자의 학습자 특성상 학습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학습 전략 면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점 또한 이들의 감정 어휘 학습 관련 어려움으로 들었다.

김경자(2017)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가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며, 이들에게 한국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맥락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적절한지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임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박나리(2015)에서는 타인과의 소통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감정 어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과의 감정 교류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감정 어휘 교육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제안했다.

김경자(2017)에서는 야콥슨(Jakobson, Roman)이 제안한 언어의 여섯가지 기능인 ‘지시적 기능’, ‘환기적 기능’, ‘감정적(표현적) 기능’, ‘교감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 ‘시적 기능’을 참고하여, 이 중 ‘감정적(표현적) 기능’과

‘교감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느낌과 상태를 표현하거나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언어 기능임을 밝혔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상황의 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감정적(표현적) 기능 수행에 있어 언어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사랑이나 행복, 슬픔이나 두려움 등과 같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언어가 아니고서는 타인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과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이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감정 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에 정착하여 가족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감정 표현 능력은 단순한 한국어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금현(2012)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하고 싶은 감정 표현을 조사하였는데,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 결과 이들은 화났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 외롭고 쓸쓸할 때나 즐겁고 기쁠 때의 감정표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다. 이 중 초급은 단순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를 몰라 이를 학습하고 싶어 했으며, 중급은 화가 난 상황에서 ‘화나다’와 같은 단순한 감정표현은 알지만 그 정도성에 따른 세부적인 감정 표현을 몰라 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고급은 상징부사를 포함한 감정표현이나, 문화와 관련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통해 단계가 높아질수록 같은 감정표현이라도 그 정도성과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섬세한 사용을 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학습자가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한국인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어휘 같은 언어 지식 이외에도 타인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김경자, 2017).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감정 어휘를 학습하여 대화 상황이나 맥락에 알맞게 감정 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한국어로 소통하는 다양한 관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본고의 연구 초점인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요구조사 및 교육 현황

3.1.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요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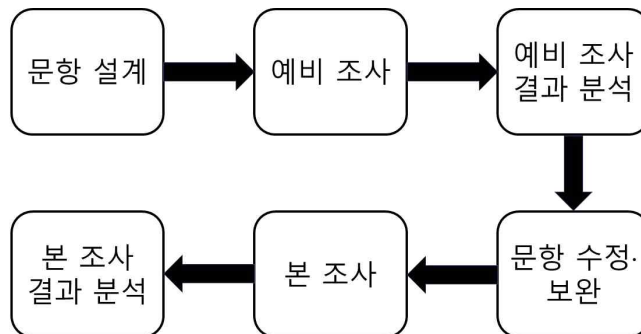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3.1.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출신 국적상의 외국인이며,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결혼이민자로 한정한다.

3.1.2. 조사 절차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3-1] 요구조사 절차

예비조사 질문지는 인적사항, 양육 관련,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 어휘 관련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사항에는 출신 국가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및 학습한 기관, 한국어 수준을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양육 관련에는 자녀의 수와 나이, 주 양육자 여부, 자녀교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달 영역,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 어휘 관련에는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지,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지,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서적 상호작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감정 표현을 할 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감정 어휘 목록 중 아는 감정 어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예비조사 질문지의 구성

영역	문항
인적사항	출신 국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기관
	한국어 수준
양육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주 양육자 여부
	자녀교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달 영역 ⁶⁾ (중복 가능)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사회성발달 - 정서발달 - 신체발달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어휘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인가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편인가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중복 가능) - 기쁨 - 슬픔 - 공포 - 분노 - 좋음 - 싫음
	정서적 상호작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복 가능) -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기 - 자녀가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맞게 행동하는 방법 알려주기 - 부모의 감정 표현하기
	자녀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어려운 점(중복 가능) -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 감정 표현을 하기 싫어서 - 자녀가 싫어할까봐 - 기타
	감정 어휘 목록 ⁷⁾ 에서 아는 감정 어휘 체크하기

예비조사는 2022년 4월 5일(화)에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결혼이

6) 김영주·김연희(2011)에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에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문항의 선택지를 설정하였다.

7) 본고의 ‘〈표 2-3〉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편집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제공했다. 이때, 감정 종류가 다른 중복 어휘는 하나의 어휘로 제시하여, 총 73개 감정 어휘를 질문지에 기재했다.

민자 1명이었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며, 한국 거주 기간은 13년이였다.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센터에서 2년 정도 받았으며,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자녀의 수는 3명이며, 각각 13세, 12세, 4세이다. 배우자와 본인의 양육 비율은 7:3으로 주 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교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달 영역으로 5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에 대해 ‘조금 잘 된다’라고 응답했는데, 자녀마다 성격이 달라 의사소통 양이 다르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가끔 표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주로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눈치채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고 답했다.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녀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듣고 나면 곧잘 공감한다고 답했다.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로 셋째 자녀가 ‘좋음’과 ‘싫음’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며, 대상자는 ‘화남’의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고 답했다. 정서적 상호작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맞게 행동하는 방법 알려주기’를 골랐다. 자녀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어려운 점으로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를 골랐다. 아는 감정 어휘 체크하기에서는 75개 어휘 중 ‘그립다’, ‘그리워하다’, ‘불쾌하다’, ‘언짢다’를 제외한 71개 어휘를 체크했는데, 해당 어휘를 모두 잘 사용하는가를 추가로 물었을 때, 다는 아니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정서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이해 영역보단 표현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점, 감정에 대한 알맞은 행동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점, 아는 감정 어휘에 비해 사용하는 감정 어휘가 적어 감정 표현 상황에서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 어려움을 느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영역 및 문항을 수정·보완한 본조사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3-2〉 본조사 질문지의 구성

영역	문항
인적사항	1. 출신 국가
	2. 한국 거주 기간
	3. 한국어 학습 기간
	4. 학습 기관
	5. 한국어 수준
양육	1. 자녀의 수
	2. 자녀의 나이
	3. 주 양육자 여부
	4.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5. 정서교육의 중요도
정서적 상호작용	1. 감정 표현의 중요도
	2. 감정 표현의 수행도 및 이유
	3. 감정 파악의 중요도
	4. 감정 파악의 수행도 및 이유
	5. 감정 공감의 중요도
	6. 감정 공감의 수행도 및 이유
	7. 감정 소통의 중요도
	8. 감정 소통의 수행도 및 이유
감정 어휘	1.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중복 가능) -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 기타
	2. 감정 어휘 목록에서 아는 감정 어휘 체크하기

본조사 질문지는 인적사항, 양육, 정서적 상호작용, 감정 어휘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사항 영역에는 출신 국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기관, 한국어 수준을 묻는 문항을 배치하여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다. 양육 영역에는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주 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서교육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했다. 정서적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감정 표현, 감정 파악, 감정 공감, 감정 소통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고, 수행도에 대한 이유를 서술형으로 응답하게 했다. 감정 어휘 영역에서는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으며, 감정 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아는 어휘, 알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 모르는 어휘를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22년 5월 22일(일)에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화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사전에 조사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1차 답변을 받았으며, 1차 답변을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문항 및 추가 질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3.1.3.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요구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적사항 영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3〉 조사 결과(인적사항 영역)

문항	답변
1. 출신 국가	- 필리핀(2) - 베트남(2) - 몽골(1)
2. 한국 거주 기간	22년 5년 9년 6년 반 15년
3. 한국어 학습 기간	1년6개월 2년 3년 6년 1년
4. 학습 기관	- 외국인근로자센터, 어학당 - 어학당 - 가족센터 - 사회통합프로그램 - 출입국관리사무소
5. 한국어 수준	- 조금 잘한다(1) - 보통이다(4)

조사 대상자들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몽골 1명이었다. 한국 거주 기간은 5년부터 22년까지였으며,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에서 6년까지였다. 한국어 학습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센터, 어학당, 가족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며,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1명은 ‘조금 잘한다’, 4명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양육 영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4〉 조사 결과(양육 영역)

문항	답변	
1. 자녀의 수	• 2명(2)	• 1명(3)
2. 자녀의 나이	• 22, 18세 • 6, 4세 • 5세	• 20개월 • 7세
3. 주 양육자 여부	• 주 양육자(3)	• 공동 양육(2)
4.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 아주 잘 된다(2) • 조금 안 된다(1)	• 조금 잘 된다(1) • 아주 안 된다(1)
5. 정서교육의 중요도	• 아주 중요하다(4)	• 중요하다(1)

자녀의 수에 대해 2명의 응답자가 ‘2명’이라고 답했으며, 3명의 응답자가 ‘1명’이라고 답했다. 자녀의 나이는 20개월부터 4, 5, 6, 7, 18, 22세까지 다양했다. 주 양육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 양육자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명, 아버지와 공동으로 양육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명이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에 대한 응답은 ‘아주 잘 된다’ 2명, ‘조금 잘 된다’ 1명, ‘조금 안 된다’ 1명, ‘아주 안 된다’ 1명으로 다양한 편이었다. 정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4명, ‘중요하다’ 1명으로 높은 중요도가 확인됐다.

정서적 상호작용 영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5〉 조사 결과(정서적 상호작용 영역)

문항	답변
1. 감정 표현의 중요도	• 아주 중요하다(4) • 중요하다(1)
2. 감정 표현의 수행도	• 아주 그렇다(2) • 그렇다(1) • 보통이다(1) • 아니다(1)
3. 감정 이해의 중요도	• 아주 중요하다(4) • 중요하다(1)
4. 감정 이해의 수행도	• 아주 그렇다(2) • 그렇다(2) • 보통이다(1)
5. 감정 공감의 중요도	• 아주 중요하다(5)
6. 감정 공감의 수행도	• 아주 그렇다(1) • 그렇다(3) • 보통이다(1)
7. 감정 소통의 중요도	• 아주 중요하다(4) • 중요하다(1)
8. 감정 소통의 수행도	• 아주 그렇다(2) • 그렇다(1) • 보통이다(2)

감정 표현의 중요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4명, ‘중요하다’ 1명으로 높은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감정 표현의 수행도를 묻는 문항에는 ‘아주 그렇다’ 2명, ‘그렇다’ 1명, ‘보통이다’ 1명, ‘아니다’ 1명으로 대체로 그 수행도가 높은 편이나, 중요도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수행도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답한 대상자는 모두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아니다’를 답한 대상자는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내성적인 성격이라서라고 답했다.

감정 이해의 중요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 4명, ‘중요하다’ 1명으로 높은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감정 이해의 수행도를 묻는 문항에는 ‘아주 그렇다’ 2명, ‘그렇다’ 2명, ‘보통이다’ 1명으로 역시 중요도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수행도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답한 대상자는 자녀가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라서, 자녀에게 감정을 잘 물어봐서, 자녀를 관찰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어서라고 답했다. ‘보통이다’를 답한 대상자는 자녀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감정 공감의 중요도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답하여, 가

장 높은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감정 공감의 수행도를 묻는 문항에는 ‘아주 그렇다’ 1명, ‘그렇다’ 3명, ‘보통이다’ 1명으로 답하였다. 수행도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답한 대상자 모두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를 답한 대상자는 알맞은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정 소통의 중요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4명, ‘중요하다’ 1명으로 높은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감정 소통의 수행도를 묻는 문항에는 ‘아주 그렇다’ 2명, ‘그렇다’ 1명, ‘보통이다’ 2명으로 답했다. 수행도의 이유를 물었을 때,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를 답한 대상자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서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를 답한 대상자는 아이가 아직 말을 안 해서,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감정 어휘 영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6〉 조사 결과(감정 어휘 영역)

문항	답변
1.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중복 가능)	• 기쁨(4) • 슬픔(1) • 무서움(1) • 화남(2) • 좋음(4) • 싫음(1)
2. 감정 어휘 목록에서 아는 감정 어휘 체크하기 (알고 잘 말한다 /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 / 모른다)	• 대상자1: 59 / 14 / 0 • 대상자2: 48 / 21 / 4 • 대상자3: 58 / 8 / 7 • 대상자4: 56 / 8 / 9 • 대상자5: 28 / 39 / 6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 종류에서는 기쁨 4명, 슬픔 1명, 무서움, 1명, 화남 2명, 좋음 4명, 싫음 1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자녀와의 감정 관련 대화가 대체로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귀가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라는 답이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자녀가 숨기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아는 감정 어휘 체크하기에서는 ‘알고 잘 말한다’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가

평균 49.8개,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가 평균 18개, ‘모른다’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가 5.2개로 나타났다. 이 중 두 명 이상이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어휘에는 ‘괴로워하다’, ‘괴롭다’, ‘귀찮다’, ‘그리워하다’, ‘긴장하다’, ‘답답하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번거롭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뿌듯하다’, ‘서글프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슬퍼하다’, ‘슬프다’, ‘실망하다’, ‘쓸쓸하다’, ‘안타깝다’, ‘알밋다’, ‘어색하다’, ‘어이없다’, ‘언짢다’, ‘유쾌하다’, ‘지겹다’, ‘지루하다’, ‘흐뭇하다’가 있었다. 두 명 이상이 ‘모른다’라고 답한 어휘에는 ‘가없다’, ‘못마땅하다’, ‘서글프다’, ‘서럽다’, ‘설레다’, ‘언짢다’, ‘우습다’, ‘지겹다’, ‘허전하다’, ‘흐뭇하다’가 있었다. 두 명 이상이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어휘 중 ‘뿌듯하다’, ‘유쾌하다’, ‘흐뭇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 감정 종류의 어휘였으며, ‘귀찮다’, ‘불편하다’, ‘슬프다’ 등과 같은 초급 수준의 어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감정 어휘를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해당 어휘를 들어본 적이 있고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대답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있었다.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모든 조사 대상자가 정서교육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도 감정 표현, 감정 이해, 감정 공감, 감정 소통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수행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중요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한 유의미한 대답으로는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자녀와 주로 이야기하는 감정이 긍정적 감정 종류로만 치우쳐 있으며, 잘 사용하는 어휘 역시 긍정적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녀의 성공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환경 및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양한 감정 종류에 대한 사용 맥락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감정 어휘를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 이유 중 해당 어휘를 들어본

적이 있고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응답은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학습자가 배운 감정 어휘를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어휘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을 제시하여 언어 지식과 언어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밝힌다.

3.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

3.2.1. 분석 대상

본 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활용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목적 학습자 또는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와 달리,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많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국가 기관 발행 교재에는 국립국어원 기획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1~중급2이 있다. 또한 본고의 연구 초점에 맞는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재에는 박주영 외 저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가 있다. 고급까지 출간된 교재는 『국립국어원의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한 종류뿐이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경우 중급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중급수준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교재의 대상 학습자와 대상 급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7〉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발행 기관	대상 학습자	대상 급수
A.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결혼이민자	초급~고급
B.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다문화가정 성인	초급~중급
C.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박주영 외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중급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어 교재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자녀교육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의 목표다. 1~4권은 총 25단원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연계를 위해 ‘언어 편’ 20단원과 ‘문화 편’ 5단원이 교재의 큰 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언어 편’의 각 단원은 본문, 어휘, 문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목, 삽화, 대화문 발음, 새 어휘와 표현으로, 문법은 형태 정보, 예문, 연습, 새 어휘와 표현으로, 활동은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새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편’의 각 단원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알아봅시다’, ‘여러분 고향은 어때요?’, ‘나라마다 달라요’, ‘정리해 봅시다’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인 5~6권에서는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2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원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로 구분된다. 읽기와 쓰기는 어휘, 읽기, 쓰기, 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듣기와 말하기는 어휘, 듣기, 말하기, 구어 표현,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는 다문화 가정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다.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생활, 이웃과의 교류, 직업 활동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의 목표다. 크게 구어에 초점을 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문어에 초점을 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로 나뉘며, 권당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의 각 단원은 제목 및 삽화, 준비, 과제, 도전,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의 각 단원은 어휘, 문법, 읽고 쓰기, 보충·복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사용자로서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다. 결혼이민자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 사회문화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실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선정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고 교재에서는 밝힌다. 교재는 총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은 크게 읽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영역은 읽고 대답하기, 읽고 요약하기, 읽고 생각하기, 읽고 배워보기, 쓰기로 구성되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문화 지식을 담은 지문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쓰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말하기

영역은 말하기1, 말하기2, 말하기3으로 구성되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들은 대상 급수와 교재 개발 목적, 구성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인 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상황이 교재 내에 등장하는 점은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 찾을 수 없는 이들 교재의 큰 특징이다. 때문에 해당 교재를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대상 교재로 선정하였다.

3.2.2. 분석 기준

본 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용 양상을 살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감정 어휘가 얼마나 제시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또 감정이 나타나는 대화문을 살펴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하는 감정 관련 활동을 확인하여 해당 활동이 본고의 2장에서 정리했던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감정 표현하기, 감정 이해하기, 감정에 공감하기, 감정 지도하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활동에서 다루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3-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세부 기준	내용
감정 어휘	학습 어휘	학습 어휘로서 제시되는 감정 어휘
	빈도	감정 관련 맥락에서 제시되는 교재 전체의 감정 어휘 빈도
감정 관련 대화문	대화 상대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대화문에서의 대화 참여자
	대화 주제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대화문의 주된 대화 소재
감정 관련 활동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감정 표현하기, 감정 이해하기, 감정 공감하기, 감정 소통하기
	감정 종류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

먼저 분석기준을 감정 어휘, 대화문, 감정 관련 활동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세부 기준으로 각각 학습 어휘와 빈도, 대화 상대와 대화 주제,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과 감정 종류를 두었다.

감정 어휘에서는 본고의 2장에서 정리한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목록의 75개 감정 어휘 중 분석 대상 교재에서 등장하는 감정 어휘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분석 세부 기준에서 학습 어휘는 교재에서 학습 어휘로서 제시하는 감정 어휘이다.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경우 단원의 어휘단계에서 제시되는 어휘와 본문, 문법, 활동 단계에서 처음 출현한 어휘를 제시하는 ‘새 어휘와 표현’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경우 단원의 제목 및 삽화에 제시되는 참고 어휘와, 과제 단계에서 제시되는 어휘가 학습 어휘에 해당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학습 어휘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빈도는 교재 전체에 등장하는 감정 어휘의 횟수로, 최대한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문, 연습, 활동 등 교재의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이때 빈도는 감정을 표현하는 맥락에서의 감정 어휘 제시 횟수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좋다’의 경우 의사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이때의 ‘좋다’는 ‘네’와 같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대답일 뿐,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 어휘의 제시 빈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화문은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감정 관련 대화문이며, 본문 혹은 말하기에 등장하는 긴 대화문으로 한정한다. 감정 어휘가 어떠한 대화 맥락에서 제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 상대와 대화 주제를 살필 것이다.

감정 관련 활동은 교재에 나타나는 감정 관련 연습, 활동, 과제를 포함한다. 세부 기준의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은 해당 활동이 본고의 2장에서 정리한 감정 표현하기, 감정 이해하기, 감정 공감하기, 감정 소통하기 중 어떤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감정 종류는 감정 관련 활동에서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 중 어떤 감정 종류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3.2.3. 분석 결과

먼저, 감정 어휘 제시 양상을 확인하겠다. 본고의 2장에서 제안한 <표 2-3>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의 75개 감정 어휘 중 분석 대상 교재에서 등장하는 어휘의 개수 및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9>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 분석 결과

교재명	학습 어휘 수 (학습 어휘 수 / 어휘 목록 어휘 수)	빈도
A.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3개 (44%)	440회
B.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	18개 (24%)	251회
C.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	55회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학습 어휘로 제시되는 감정 어휘

는 총 33개로, 이는 <표 2-3> 어휘 목록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재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 어휘의 빈도는 440회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학습 어휘로 제시되는 감정 어휘는 총 18개로, 이는 어휘 목록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재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 어휘의 빈도는 251회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교재 구성에 학습 어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 어휘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가 없었다. 교재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 어휘의 빈도는 55회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분석한 감정 어휘 제시 양상을 감정 종류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쁨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0>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기쁨)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⁸⁾	빈도	학습 어휘 ⁹⁾	빈도	학습 어휘 ¹⁰⁾	빈도
기쁨	감사하다		15	○	12		2
	고맙다	○	39	○	18		2
	기뻐하다		1				
	기쁘다	○	12	○	10		1
	만족하다				3		
	반갑다		3		2		
	뿌듯하다	○	2				
	유쾌하다						
	자랑스럽다	○	2				1
	즐겁다	○	11		3		
	행복하다	○	26	○	6		1
	흐뭇하다		1				
계	12	6	112	4	54	0	7

8) A교재의 학습 어휘는 단원의 ‘어휘’ 파트에서 제시되는 어휘 및 ‘본문’, ‘문법’, ‘활동’ 파트의 ‘새 어

기쁨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12개 중 ‘고맙다’, ‘기쁘다’, ‘행복하다’의 3개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고빈도 어휘로는 ‘고맙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감사하다’는 고빈도 어휘임에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만족하다’의 경우 자녀의 성취와 관련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어휘임에도 모든 교재에서 학습 어휘로 제시되지 않았고, 그 빈도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3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휘와 표현’에서 제시되는 어휘로 한정했다.

9) B교재의 학습 어휘는 단원의 제목에서 제시되는 ‘참고 어휘’와, ‘과제’ 파트의 ‘어휘’에서 제시되는 어휘로 한정했다.

10) C교재는 학습 어휘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슬픔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1〉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슬픔)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슬픔	가엾다						
	괴로워하다	○	1				
	괴롭다		1				
	그리워하다*						
	그립다			○	7		
	미안하다	○	20	○	13		2
	부끄럽다	○	3		2		1
	불쌍하다						1
	서글프다						
	서럽다						
	서운하다	○	7		1		
	섭섭하다						
	슬퍼하다		1				
	슬프다	○	9		9		
	실망하다	○	3	○	1		1
	쓸쓸하다						
	안타깝다						
	외롭다	○	3				
	우울하다	○	6		1		
	죄송하다		14	○	21		
	창피하다		4				
	허전하다						
계	22	8	72	4	55	0	5

슬픔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22개 중 ‘미안하다’, ‘실망하다’의 2개로 역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고빈도 어휘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들 수 있는데, 이중 ‘죄송하다’는 고빈도 어휘임에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슬프다’의 경우 슬픔을 나타내는 기본 감정 어휘임에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되었다. 또, ‘부끄럽다’, ‘불쌍하다’, ‘서운하다’, ‘우울하다’, ‘창피하다’ 등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감정 어휘가 학습어휘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한 종류의 교재에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포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공포)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공포	걱정스럽다						
	걱정하다	○	69	○	27		10
	긴장하다	○	2	○	3		1
	놀라다	○	9		2		
	당황하다	○	3	○	7		
	두려워하다						
	두렵다		1				
	무섭다	○	12		5		1
	불안하다	○	4	○	2		
계	9	6	100	4	46	0	12

공포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9개 중 ‘걱정하다’, ‘긴장하다’, ‘당황하다’, ‘불안하다’의 4개로

그 수가 전체의 반 이하였다. 고빈도 어휘로는 ‘걱정하다’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섭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무섭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기본 감정 어휘임에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노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3〉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분노)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분노	답답하다	○	4		1		
	속상하다	○	3	○	2		5
	언짢다		1				
	짜증나다		5	○	14		
	화나다	○	20	○	8		4
계	5	3	33	3	25	0	9

분노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5개 중 ‘속상하다’, ‘화나다’의 2개로 그 수가 전체의 반 이하였다. 고빈도 어휘로는 ‘화나다’, ‘짜증나다’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짜증나다’는 고빈도 어휘임에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좋은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4〉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좋은)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좋은	그리워하다*						
	놀랍다						
	사랑하다		6		5		
	설레다	○	1	○	1		
	신기하다		1				
	재미있다	○	36		29		13
	좋다	○	25		13		7
	좋아하다	○	10		2		1
	우습다*						
계	9	4	79	1	50	0	21

좋은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9개 중 ‘설레다’ 하나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고빈도 어휘로는 ‘재미있다’, ‘좋다’ 등을 들 수 있는데, 고빈도 어휘 모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됐다. 또, ‘설레다’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 각 1회씩만 등장했다. 학습 어휘로 제시되지 않은 어휘 중 특히 ‘사랑하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어휘임에도 학습 어휘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싫음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의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5〉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싫음)

감정 종류	어휘 목록	A교재		B교재		C교재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학습 어휘	빈도
싫음	귀찮다		2				
	못마땅하다		2				
	밉다						
	번거롭다						
	부럽다	○	1	○	1		
	불쾌하다	○	1		1		
	불편하다		2				
	싫다	○	5				1
	싫어하다	○	15		4		
	아깝다						
	아쉽다	○	1	○	3		
	알밉다				1		
	어색하다						
	어이없다						
	우습다*						
	재미없다	○	12		10		
	지겹다						
	지루하다		3		1		
계	18	6	44	2	21	0	1

싫음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중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모두 학습 어휘로 제시된 감정 어휘는 어휘 목록의 18개 중 ‘부럽다’, ‘아쉽다’의 2개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고빈

도 어휘로는 ‘재미없다’, ‘싫어하다’를 들 수 있는데, 고빈도 어휘 모두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됐다. 또, ‘싫다’의 경우 싫음을 나타내는 기본 감정 어휘임에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만 학습 어휘로 제시됐다. ‘귀찮다’와 ‘밉다’의 경우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는 어휘임에도 학습어휘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양상을 살핀 결과, 전체 감정 어휘 목록에 비해 제시되는 학습 어휘가 매우 적은 수치였고, 고빈도 어휘와 학습 어휘가 연계되지 않았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감정 어휘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이고, 초등학교 아이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내용 구성임에도 제시되는 감정 어휘의 수와 빈도가 낮고, 학습 어휘 자체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분석 대상 교재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에 대해 교재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6〉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

대화 참여 인원	대화 상대	등급 및 단위	대화 주제
2인	자녀	1급 17과	영화
		5급 20과	장난감(타이르기)
	이웃	2급 11과	요리
		3급 3과	집들이
		3급 5과	드라마
		3급 15과	유아 응급상황
		3급 18과	유치원 재롱잔치
		4급 4과	병문안
		4급 8과	결혼
		4급 17과	봉사활동 참여
		4급 19과	남편에게 서운한 점
		5급 7과	응급처치
		5급 17과	부부 관계
	친구	5급 15과	부당해고
		6급 4과	물가
		6급 6과	노후 걱정
		6급 7과	행복
		6급 14과	자녀교육(학원)
	직장 동료	6급 8과	직장 생활
	남편	3급 13과	말다툼
		4급 5과	시어머니
		4급 6과	결혼기념일
		4급 12과	운전면허시험
		5급 4과	불만
	시어머니	4급 7과	꿈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화 상대자는 이웃이었으며, 친구와 남편이 그 뒤를 이었다. 자녀와

의 대화는 두 건으로 다소 적은 비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7〉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

대화 참여 인원	대화 상대	등급 및 단원	대화 주제
2인	친구	1급 5과	한국 생활
		1급 9과	주말에 한 일
		1급 10과	연휴 계획
		2급 7과	약속 취소
		3급 4과	결혼식 초대
		3급 15과	이사한 집에 대한 불만
		3급 16과	향수병
		4급 5과	취업
		4급 10과	남편과의 다툼
	이웃	1급 12과	한국 생활
		3급 9과	층간소음
		3급 10과	청약 통장
	담임교사	4급 3과	학부모 상담(자녀의 학교 생활)
	자녀	4급 13과	공개수업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에서의 대화 상대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와 이웃이었다. 자녀와의 대화는 단 한 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8〉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대화문
제시 양상

대화 참여 인원	대화 상대	등급 및 단원	대화 주제
2인	자녀	중급 1단원	입학
		중급 2단원	학교 생활
		중급 4단원	책 - 토끼의 간
		중급 5단원	약속
		중급 6단원	수업 내용 - 그림자
		중급 6단원	수학 공부
		중급 7단원	인형극
		중급 10단원	영화 약속
		중급 11단원	엄마의 어린 시절
	동료 학부모	중급 1단원	입학
		중급 1단원	입학
		중급 2단원	자녀 양육
		중급 8단원	담임선생님
		중급 9단원	녹색어머니회 활동
	남편	중급 2단원	현장학습
		중급 8단원	자녀의 성적표
	교사	중급 8단원	자녀의 학교 생활
3인	자녀들	중급 5단원	수업 내용 - 한국의 위인
	자녀, 남편	중급 7단원	수업 내용 - 소고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에서는 감정 관련 대화의 대화 상대자 중 자녀가 가장 많다. 이는 해당 교재의 개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교재의 감정 관련 대화문의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제외한 교재의 대화 상대자의 비중 중 이웃과 친구의 대화 비중이 컸으며, 자녀와의 대화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감정 관련 활동 양상의 교재별 분석 결과이다. 먼저,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19〉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등급 및 단원	활동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감정 종류
1급 17단원	감정 어휘 알맞게 연결하기	감정 이해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감정 말하기 게임	감정 표현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
1급 20단원	언제 기분이 좋고 나쁜지 쓰기 연습	감정 이해	좋음, 싫음
2급 7단원	고민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조언하는 댓글 쓰기	감정 소통	싫음
2급 17단원	언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쓰기	감정 표현	기쁨, 좋음, 싫음
3급 3단원	감사 편지 쓰기	감정 표현	기쁨
3급 14단원	감사 편지 쓰기	감정 표현	기쁨
3급 15단원	걱정 표현 쓰기 연습	감정 표현	공포
	걱정 말하기 연습	감정 표현	공포
	걱정 말하기	감정 표현	공포
3급 17단원	감정 회상 말하기 연습	감정 표현, 감정 공감	싫음, 슬픔
4급 6단원	부부싸움에 대해 대화하기	감정 표현, 감정 공감	슬픔, 분노, 싫음
4급 8단원	축하하는 대화 연습	감정 이해	기쁨, 좋음
4급 19단원	감정에 대한 대화 연습	감정 표현, 감정 이해	슬픔, 분노, 싫음
5급 19단원*	감정 강조 표현 연습	감정 표현	슬픔
6급 7단원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기	감정 표현	기쁨
6급 8단원	부러움 말하기	감정 표현	싫음
6급 14단원	어려움에 대한 심정 말하기	감정 표현	슬픔, 화남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은 18건으로, 해당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을 살폈을 때 감정 표현이 포함되는 활동이 14건으로 대다수였다. 특히, 감정 공감은 2건, 감정 소통은 1건으로 그 비중이 적었다. 활동에서 다루는 감정 종류를 살폈을 때, 4가지 이상의 감정에 대한 활동은 전체 활동 중 2건으로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활동의 수가 적었으며, ‘감사 편지 쓰기’, ‘걱정 말하기’, ‘부러움 말하기’와 같이 하나의 감정 종류를 표현하는 활동이 9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20〉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등급 및 단원	활동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감정 종류
2급 13단원	언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하기	감정 표현	슬픔, 좋음, 싫음
2급 16단원	걱정과 해결방안 이야기하기	감정 표현, 감정 소통	분노, 싫음, 슬픔
2급 8과	당황한 일 이야기하고 쓰기	감정 표현	공포
2급 12과	그림 보고 감정 어휘를 골라서 문장 완성하기	감정 이해	기쁨, 슬픔, 분노
2급 13과	어떤 감정일 때 무엇을 하는지 말하기	감정 표현	기쁨, 싫음
3급 4과	걱정과 조언 말하기	감정 표현, 감정 소통	공포, 싫음
3급 10과	걱정과 조언 말하기	감정 표현, 감정 소통	공포
3급 16과	고향이 그리울 때 어떻게 하는지 말하기	감정표현	슬픔
4급 6과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기분 표현하기	감정표현	기쁨, 슬픔, 공포, 싫음
4급 10과	화가 났던 상황 말하기	감정 표현	분노
4급 10과	화가 난 감정 표현하기와 잘못 이야기 하고 용서 구하기 역할극	감정 표현	분노, 공포
4급 13과	아이의 좋은 점 칭찬과 감사의 마음 표현 말하기	감정 표현	기쁨
4급 5과	상황 보고 감정 어휘 추측하기	감정 이해	기쁨, 공포, 좋음, 싫음
4급 10과	상황 보고 감정 어휘 추측하기(2)	감정 이해	기쁨, 공포, 분노, 싫음
4급 10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야기 하기(2)	감정 표현	기쁨, 공포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은 15건으로, 해당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을 살폈을 때 감정 표현이 포함되는 활동이 12건으로 대다수였다. 감정 이해와 감정 소통은 3건으로 그 비중이 적었으며, 감정 공감에 해당하는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에서 다루는 감정 종류를 살폈을 때, 4가지 이상의 감정에 대한 활동은 전체 활동 중 3건으로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활동의 수가 적었으며, ‘당황한 일 이야기하고 쓰기’, ‘걱정과 조언 말하기’, ‘화가 났던 상황 말하기’와 같이 하나의 감정 종류를 표현하는 활동이 5건 확인되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21〉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 양상

등급 및 단원	활동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감정 종류
중급 1단원	걱정 되는 것 말하기	감정 표현	공포
중급 2단원	아이의 기분 추측하기	감정 이해	슬픔, 기쁨, 좋음, 싫음
중급 2단원	경험과 느낌 말하기	감정 표현	기쁨, 좋음, 공포
중급 3단원	아이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말하기	감정 이해	좋음, 싫음
중급 6단원	다른 사람 격려하기	감정 소통	공포, 분노, 싫음
중급 8단원	다른 사람 위로하기	감정 소통	공포
중급 10단원	위로하기	감정 공감	분노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의 감정 관련 활동은 7건으로, 해당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을 살폈을 때 감정 표현이 2건, 감정 이해가 2건, 감정 공감이 1건, 감정 소통이 2건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에서 다루는 감정 종류를 살폈을 때, 4가지 이상의 감정에 대한 활동은 전체 활동 중 1건으로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활동의 수가 적었으며, ‘걱정되는 것 말하기’와 같이 하나의 감정 종류를 표현하는 활동이 1건, ‘다른 사람 위로하기’, ‘위로하기’와 같이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 종류에 대해 공감하고 지도하는 활동이 2건 확인되었다.

분석 대상 교재의 감정 관련 활동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제외한 교재의 활동에 해당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이 대부분 감정 표현에 머물러있었으며, 가장 적게 확인된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은 감정 공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 소통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겪는 상대방에게 조언, 격려, 위로를 하는 방식의 활동만이 확인되었다. 또, 전체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활동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교재에서 본고에서 선정한 교육용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에 비해 제시되는 학습 어휘가 매우 적은 비율이었으며, 고빈도 감정 어휘 중 학습 어휘로 제시되지 않은 어휘가 다소 발견되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자녀와의 소통에 교재 개발 목적이 있음에도 등장하는 감정 어휘의 수와 빈도가 낮고, 학습 어휘가 제시되지 않았다. 교수·학습 단계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어휘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제외한 두 교재의 감정 관련 대화문의 대화 상대자 중 이웃과 친구의 대화 비중이 컸으며, 자녀와의 대화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가장 큰 한국어 학습 동기 중 하나가 자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단계에서 이상적인 자녀와의 감정 관련 대화문을 제시하여, 감정 어휘 활용의 구체적 예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제외한 두 교재의 감정 관련 활동에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이 대부분 감정 표현에 해당했으며, 가장 적게 확인된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은 감정 공감이었다. 감정 소통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겪는 상대방에게 조언, 격려, 위로를 하는 방식의

활동만이 확인되었다. 또, 전체적으로 다양한 감정 종류를 다루는 활동이 적게 확인되었다. 교수·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 맥락에서의 감정 관련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며, 활동 안에서 다양한 감정 종류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

4.1. 교육 내용 선정

본고에서 제안하는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한국어 감정 어휘를 활용하여 자녀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에 따른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등급화하는 과정과, 감정 어휘가 활용되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설정한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의 학습 단계는 중급이다. 이는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할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결혼이민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중급인 점과, 본고의 교육 내용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20)의 중급 총괄목표의 내용 중 ‘친숙한 사회적 상황과 추상적 소재에 대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4.1.1. 교육용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 선정

본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용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한국어 기초사전을 참고한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은 본고의 2장에서 선정한 바 있다. 본항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어휘 등급 목록을 참고하여 감정 종류별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을 학습 단계에 따라 등급화하고, 중급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등급화를 위해 참고한 문헌은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1~6), 경희대학교의 『경희 한국어』(초급1~고급2),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 한국

어』(1-1~6), 국립국어원의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초급1~중급2), 국립국어원(2017)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어휘 등급 목록이다. 이들 문헌을 참고하여 등급화 한 한국어 감정 어휘 등급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1〉 한국어 감정 어휘 등급 목록

단계	감정 어휘	계
초급	감사하다, 걱정하다, 고맙다, 귀찮다, 그리워하다, 기뻐하다, 기쁘다, 놀라다, 만족하다, 무섭다, 미안하다, 반갑다, 불쌍하다, 불편하다, 사랑하다, 섭섭하다, 슬퍼하다, 슬프다, 신기하다, 싫다, 싫어하다, 외롭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좋다, 좋아하다죄송하다, 즐겁다, 짜증나다, 창피하다, 행복하다, 화나다	32
중급	걱정스럽다, 괴롭다, 그립다, 긴장하다, 놀랍다, 답답하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밉다, 부끄럽다, 부럽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뿌듯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설레다, 속상하다, 실망하다, 쓸쓸하다, 아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어색하다, 어이없다, 우습다, 우울하다, 유쾌하다, 자랑스럽다, 지겹다, 지루하다	32
고급	가엾다, 괴로워하다, 못마땅하다, 번거롭다, 서글프다, 알밋다, 언짢다, 허전하다, 흐뭇하다	9
합 계		73

이 중 중급에 해당하는 본고의 교육용 감정 어휘 목록을 감정 종류에 따라 정리한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교육용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

단계	감정 종류	감정 어휘	개수	계
중급	기쁨	뿌듯하다, 유쾌하다, 자랑스럽다	3	33
	슬픔	괴롭다, 그립다, 부끄럽다, 서럽다, 서운하다, 실망하다, 쓸쓸하다, 안타깝다, 우울하다	9	
	공포	긴장하다, 걱정스럽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불안하다	6	
	분노	답답하다, 속상하다	2	
	좋음	놀랍다, 설레다, 우습다* ¹¹⁾	3	
	싫음	밉다, 부럽다, 불쾌하다, 아깝다, 아쉽다, 어색하다, 어이없다, 우습다*, 지겹다, 지루하다	10	

4.1.2.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설정

본 항에서는 감정 어휘를 활용한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 제시한 정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를 학습 단계와 의사소통 기능,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설정한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 4-3〉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설정

학습단계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내용
중급	1. 부모의 감정 표현하기	부모의 감정 표현
	2.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자녀의 감정 파악
	3.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	자녀의 감정에 공감 나타내기
	4. 자녀와 감정 소통하기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11) ‘우습다’는 상반되는 감정 종류인 좋음, 싫음에 중복 해당하여 ‘*’ 표시하였다.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부모의 감정 표현하기,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 자녀와 감정 소통하기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각 의사소통 기능의 교육 내용은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부모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 감정 어휘를 활용하여 자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자녀의 감정에 공감을 나타내는 것,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자녀와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체 교육 내용은 하나의 단원으로 제시되며,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은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단계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2. 교육 방안

본 절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의 마련을 위해 교수학습의 절차와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3장에서 진행한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의 방향이 되는 기본 사항을 설정하고, 교수법 및 수업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예시를 보이고자 한다.

4.2.1. 교수학습 절차

먼저,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감정 종류를 다룬다. 본고의 2장에서 정리한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의 6가지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대화 상황 및 어휘를 제공해 학습자가 감정 종류에 따른 적절한 감정 어휘를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둘째, 감정 어휘가 활용되는 맥락을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 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이때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사소통 기능이 이루어지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을 제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접하는 상황을 반영한 과제 및 연습 활동이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교수법으로는 과제 중심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제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식 접근법의 교수법 중 하나로, 언어 교수에 있어서 수업의 필수 단위인 과제를 바탕으로 한 교수법이다. 일상의 실제적인 의사소통과 유사한 조건의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 능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과제 중심 교수법에서는 목표어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둔다. 제시되는 과제는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 학습 목표 등이 고려된 것이어야 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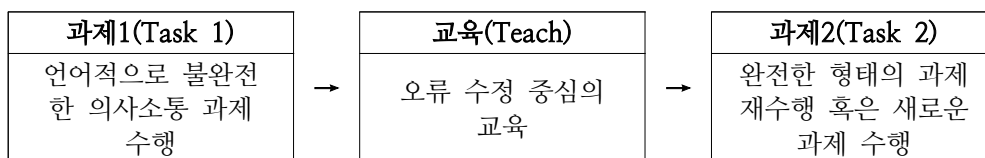
과제 중심 교수법의 과제 활동 단계는 ‘과제 전 단계 - 과제 단계 - 과제 후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과제 전 단계’는 교사가 과제의 목표나 주제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과제 수행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과제 수행 단계’는 대부분 교사의 지도하에 목표어를 사용하여 짝이나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을 돕고 난관에 봉착하면 잘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과제 후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에 대해 발표하고 그룹 상호 간에 평가와 자기 평가를 통해 중요한 표현을 익히게 된다¹²⁾.

위에서 살핀 과제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TTT 모형으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TTT 모형은 PPP 모형¹³⁾의 대안으로 소개된 과제 중심 모형의 예인 ‘과제1(Task1) - 교육(Teach) - 과제2(Task2)’를 가리키는 것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 모형이다. TTT모형은 교사의 사전 설명 없이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한 후 교사의 학습 내용 교육이 이루어지며,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오류를 피드백하고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한다. 때문에 TTT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12) 김재욱 외(2010), 고산·박덕유(2017)를 참고하였다.

13) PPP 모형은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 모형으로,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산출(Production)’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PPP 모형은 먼저 교사가 학습 내용에 관해 설명한 후에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는 것이다. 때문에 PPP 모형은 교사 중심적이며,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둔다. TTT 모형은 의사소통 중심적이며, 의미 전달을 위한 언어 사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어 지식이 하나의 개별 항목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언어 지식과 기능이 통합될 수 있다. TTT 모형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 TTT 모형의 과정¹⁴⁾

결혼이민자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언어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상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이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알고 있는 언어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업 후 가정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학습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기본 방향은 한국어 감정 어휘를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다. 과제 중심 교수법과 TTT 모형으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목표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하나의 실제적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며, 감정 어휘 및 문법, 관련 표현이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언어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이 통합될 수 있다.

TTT 모형을 이용한 교실 수업의 기본 절차는 ‘도입 - 과제1 - 교육 - 과제2 - 마무리’로 이루어진다. TTT 모형을 이용한 교수학습 절차의 기본 내용과 본고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의 예시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와 같다.

14) 이준호(2010: 255)를 참고했다.

〈표 4-4〉 교수학습 절차 및 교육 내용 예시

단계 (시간)	과정	내용	예시
도입 (5)	동기 유발 학습 내용 제 시	- 시청각 자료, 질문 등 을 통한 동기 유발 - 학습할 내용 제시	그림을 제시하고 어떤 감정인지 추측하는 질문을 통해 동기 유 발
과제1 (10)	1차 과제 수행	1차 과제 제시 및 소 개 - 과제 해결 방법을 설 명하지 않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과제를 해 결하도록 유도	상황 보고 자녀의 감 정을 이해하는 대화 작활동
교육 (10)	어휘와 표현 정리	목표 학습 내용 정리 및 설명	- 이상적인 대화문 제시 - 감정 어휘, 관련 문 법, 관련 표현 설명
과제2 (20)	2차 과제 수행	1차 과제와 성격이 비슷하나 보다 심화된 2차 과제 제시 및 소 개	- 과제1 재진행 - 자녀의 감정을 묻고 공감하는 대화 역할극
마무리 (5)	학습 내용 정 리 활동 후 감상 발표	- 과제 수행 결과 확인 하기 - 질문을 통한 학습 내 용 복습 - 학습자들에게 과제 수 행 후 느낀 점 질문 하기	- 학습 내용 점검 - 감정 이해와 공감에 대해 느낀 점 질문하 기

4.2.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실제

본 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전체 교육 내용은 하나의 단원에 포함되며, 이때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은 계열성¹⁵⁾에 따라 배열되어 단계

15) 계열성이란 시간적으로 어떤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한 순서를 말한다. 계열성의 원리는 대부분의 교수 학습 활동에서 지켜져 온 기본적인 원리이다(곽지영 외, 2007).

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5〉 단원 학습 내용

단원명	기능	어휘	과제
감정과 자녀교육	감정 표현하기	감정 어휘1	감정 표현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감정 어휘2	감정 이해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	감정 어휘3	공감 공감
	자녀와 감정 소통하기	감정 어휘4	감정 소통

단원명은 감정과 자녀교육이며 기능에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네 가지를 배치하였다. 어휘에서는 〈표4-2〉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의 감정 어휘 중 각 기능과 연계 가능한 어휘를 감정 종류별로 제시할 것이다. 가령, ‘감정 표현하기’ 기능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어휘에는 감정 종류별로 각각 ‘자랑스럽다’, ‘실망하다’, ‘걱정스럽다’, ‘속상하다’, ‘놀랍다’, ‘아쉽다’ 등이 있을 것이고,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기능에서 학습 가능한 어휘에는 ‘뿌듯하다’, ‘우울하다’, ‘두려워하다’, ‘답답하다’, ‘설레다’, ‘부럽다’ 등이 있을 것이다. 과제에서는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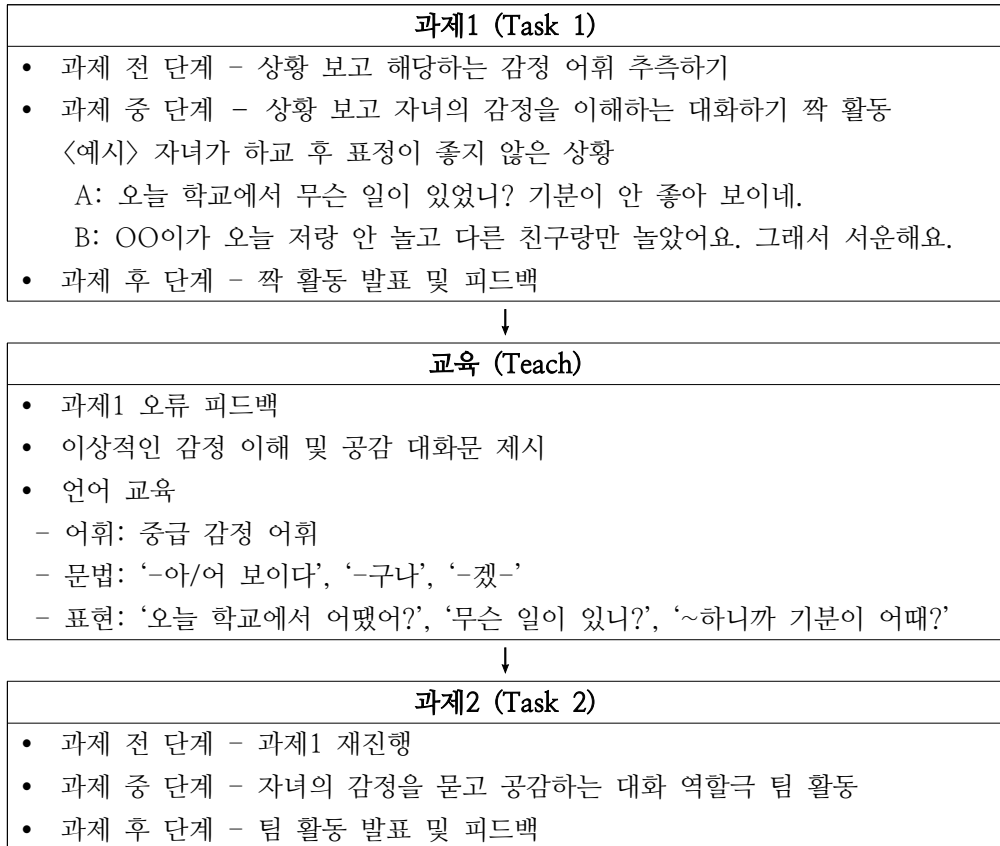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의 예를 보이기 위해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중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와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를 연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4-6〉 수업 개요

학습 대상	결혼이민자	학습 단계	중급
단 원 명	감정과 자녀교육	수업 차시	2차시
학습 목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기 능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		
학습 내용	감정 어휘, 감정 관련 표현, 문법 ‘-아/어 보이다’, ‘-는구나’, ‘-겠-’		
학습 자료	활동지 및 수업ppt		

수업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수업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4-7〉 수업 모형



과제1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활동지를 제공한다. 활동지에는 두 가지 활동이 제시되며, 활동지의 1번에는 자녀가 학교 후 표정이 좋지 않은 상황, 자녀가 유치원에서 상장을 받아 온 상황, 자녀가 겁에 질린 채로 울고 있는 상황 등의 6가지 감정 종류에 따른 감정 상황이 제공된다. 과제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각 감정 상황을 보며 아이의 감정이 어떠한지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메모하게 한다. 과제 중 단계에서는 2명이 짝을 지어 각자 추측한 자녀의 감정을 확인하고, 각 감정 상황에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하게 한다. 과제 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돌아가며 짝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나머지 학습자가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 관찰한다.

교육 단계에서는 먼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과제1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과제 수행에서 사용한 감정 어휘와 표현 중 잘한 사례를 들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오류를 보인 사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목표 어휘 및 문법, 표현과 관련된 잘한 사례와 오류 사례에 집중하게 하여, 이후의 언어 교육과 이어지게 한다. 피드백을 마친 후에는 학습자에게 이상적인 대화문을 제시한다. 대화문에는 목표 언어를 포함하여, 대화문의 흐름에 따라 해당 언어 지식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목표 어휘는 중급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이며, 목표 문법은 ‘-아/어 보이다’, ‘-구나’, ‘-겠-’이다. ‘-아/어 보이다’는 겉으로 볼 때 앞의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추측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녀의 감정을 짐작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어떤 느낌을 실어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자녀의 감정을 파악한 후 명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자녀의 감정에 공감할 때 사용 가능하다. 목표 표현은 자녀의 감정을 물어볼 때 사용 가능한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무슨 일이 있니?’, ‘~하니까 기분이 어때’이다. 대화문의 내용은 감정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 공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준비한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 후에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여, 이후 과제2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준비한 항목 외에도 학습자들이 많이 범한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2의 과제 전 단계에서는 과제1을 다시 한번 수행한다. 과제1의 감정 상황 중 오류가 많았던 몇 가지를 선택하여 반 전체가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제 중 단계에서는 3~4명이 팀을 이루어 활동지의 2번에 해당하는 역할극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지에는 감정 종류별 6가지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활동지의 6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묻고 공감하는 대화를 할지 토의하고,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 감정 묻고 공감하기 역할극을 수행한다. 활동 후 단계에서는 팀별로 역할극 발표를 진행한다. 교사는 발표를 관찰하고 과제1에 비해 나아진 점과 오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피드백하고, 언어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반 전체와 공유한다.

V. 결 론

본고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한국어 감정 어휘의 범주를 정하고, 한국어 감정 어휘를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의 6가지 감정 종류에 따라 분류했으며, 감정 어휘가 기능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을 감정 표현, 감정 이해, 감정 공감, 감정 소통으로 설정하였다. 또,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어려움에 대해 살피고, 결혼이민자 대상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3장에서는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높은 중요도를 느끼고 있는 점과 부정적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감정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대상 교재의 감정 어휘 제시 및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되는 학습 감정 어휘와 자녀와의 감정 관련 대화문이 부족한 점,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 맥락 및 감정 종류를 다루는 감정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활용 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육용 중급 한국어 감정 어휘 목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선정하였다. 교수 방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사항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첫째, 다양한 감정 종류를 다룬다. 본고의 2장에서 정리한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좋음, 싫음의 6가지 감정 종류에 해당하는 대화 상황 및 어휘를 제공해 학습자가 감정 종류에 따른 적절한 감정 어휘를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둘째, 감정 어휘가 활용되는 맥락을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

능 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이때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사소통 기능이 이루어지는 정서적 상호작용 상황을 제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접하는 상황을 반영한 과제 및 연습 활동이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과 TTT 모형을 적용한 교육 방안의 예를 보이기 위해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 중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와 ‘자녀의 감정 공감하기’를 연계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부모 역할 중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자녀와의 감정 교류는 자녀의 인격 형성 및 정서발달, 가족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감정 어휘를 활용하여 정서적 상호작용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 방식은 실제성이 있는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감정 어휘가 동사와 형용사로 한정되어 감정을 나타내는 결합 형태나 감탄사, 관용 표현 등을 다루지 못한 점, 단일한 수업 모형만을 제시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후속 연구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진숙. (2021).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해우 외. (2019). 카드 소팅을 이용한 한국어 감정 어휘 분류.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대한인간공학회, 24-28.
- 강현화. (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한국어 의미학, vol.17, 한국어의미학회, 43-64.
- 강혜진. (2020). 과제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실행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희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 (2019). 경희 한국어 초급-고급.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9). 재미있는 한국어1-6. 교보문고.
- 고산·박덕유. (2017). 과제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담화표지 ‘그냥’ 교육 연구. 인문사회 21, Vol.8, No.5, 아시아문화학술원, 17-37.
-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 (2010).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도서출판하우.
- 국립국어원. (2019).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1-중급2, 도서출판하우.
- 김경자. (2017).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과 학습자의 수용 실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김연희. (2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교육, vol.38, 한국교육개발원, 55-81.
- 김윤주. (201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재 비교 분석. 우리어문연구, vol.39, 우리어문학회, 337-368.
- 김은영. (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2010).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 양상과 실천적 함의. 한국이민학, vol.1, 한국이민학회, 37-66.

- 김재욱 외. (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 김지영. (2014). TTT 모형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모듈 조직 방안. 어문논집, Vol.0, No.72, 민족어문학회, 251-276.
- 김정현. (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은·장미정. (2016).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767-793.
- 문금현. (2012).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 vol.22, 시학과언어학회, 175-200.
- 박나리. (2015). 신체언어를 활용한 감정표현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 (2012). 어머니의 자녀와의 정서 담화와 정서발달신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6).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외. (2012).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역락.
- 방지선. (2014). 부정적 감정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 (2010).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한국언어문학, vol.74, 한국언어문학회, 31-59.
- 손달임. (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 형용사의 교육 연구. 이화어문논집, vol.49, 이화어문학회, 275-302.
- 손선주 외. (2012). 한국어 감정표현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감성과학, vol.15, 한국감성과학회, 105-120.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효진. (2015). 모-자 정서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지. (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우. (2020). 역사 말뭉치 분석을 통한 감정 어휘의 의미 영역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vol.70, 한국어의미학회, 69-100.
- 이선영. (2008).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독학용 청각 교재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진. (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형용사 선정과 분류. 한국어문교육, vol.2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479-511.
- 이지영.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vol.29, 한국어의미학회, 201-227.
- 이준호. (2010). TTT 모형을 활용한 추측 표현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Vol.44, 이중언어학회, 247-273.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 이화 한국어1-6.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효정. (2015).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71-302.
- 이효정. (2016).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4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81-308.
- 유옥. (2020).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동문사.
- 유효순. (2007). 아동발달. 창지사.
- 장덕희.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아동교육, vol.17, 한국아동교육학회, 243-256.
- 전형길 외. (2012).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vol.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1-393.
- 정옥분 외(2018).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학지사.
- 통계청. (2020). 결혼이민자 현황. <http://kostat.go.kr>(검색일: 2022. 03. 25)
-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2005). 이런건, 궁금해요.
- 허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현은애.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한국생활과학회, 675-687.

Dursun·ESSIZ. (2020).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교육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한국어교수학습센터 <https://kcenter.korean.go.kr>

〈부록 1〉 요구조사 질문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인터뷰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과 감정 어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논문 연구에 사용됩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최 재 희

[인적사항]

1.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2.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3. 한국어를 몇 년 배웠습니까?
4.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5. 본인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못한다 ② 조금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양육]

1. 자녀가 몇 명입니까?
2. 자녀가 몇 살입니까?
3.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조금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잘 된다 ⑤ 아주 잘 된다
5. 자녀를 가르칠 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중요하다

[정서적 상호작용]

1.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중요하다
2. 평소 감정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
- 2-1.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어서 /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3. 자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중요하다

4. 평소 자녀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

4-1.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시: 자녀에게 감정을 잘 물어봐서 /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5. 자녀의 감정을 알았을 때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중요하다

6. 자녀의 감정을 알았을 때 잘 공감해 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

6-1.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이어서 /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7.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중요하다

8. 자녀와 감정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

8-1.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시: 자녀의 감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서 / 알맞은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감정 어휘]

1.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감정에 대해 말합니까?(중복 가능)

- ① 기쁨 ② 슬픔 ③ 무서움 ④ 화남 ⑤ 좋음 ⑥ 싫음 ⑦ 기타_____

2. 아는 감정 어휘에 표시해 주세요.

(O: 알고 잘 말한다 / △: 알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 / X: 모른다)

어휘	표시	어휘	표시	어휘	표시
가없다		번거롭다		알밋다	
감사하다		부끄럽다		어색하다	
걱정스럽다		부럽다		어이없다	
걱정하다		불쌍하다		언짢다	
고맙다		불안하다		외롭다	
괴로워하다		불쾌하다		우습다	
괴롭다		불편하다		우울하다	
귀찮다		뿌듯하다		유쾌하다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자랑스럽다	
그립다		서글프다		재미없다	
기뻐하다		서럽다		재미있다	
기쁘다		서운하다		좋다	
긴장하다		설레다		좋아하다	
놀라다		섭섭하다		죄송하다	
놀랍다		속상하다		즐겁다	
답답하다		슬퍼하다		지겹다	
당황하다		슬프다		지루하다	
두려워하다		신기하다		짜증나다	
두렵다		실망하다		창피하다	
만족하다		싫다		행복하다	
못마땅하다		싫어하다		허전하다	
무섭다		쓸쓸하다		화나다	
미안하다		아깝다		흐뭇하다	
밋다		아쉽다			
반갑다		안타깝다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Emotional Vocabulary by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Choi, Jae-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educational measures using emotional vocabulary for children's education by marriage immigrants. Emotions are the basis for human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of emotions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s a basic and important process. In particular, emotional exchange is of great importance in establishing smooth interactions and trust relationships with families. On the other hand,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s become more fluent in Korean than their parents, and, when language development reaches a certain point, marriage immigrants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ducting children's educ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family is ensuring children's socialization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begins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t home. In this paper,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use the context of emotional interaction with children for the education of marriage immigrants, and we would like to propose a specific teaching plan for the use of Korean emotional vocabulary.

In Chapter 1,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ducation using emotional vocabulary, previous studies related to emotional vocabulary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stud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reviewed by field, and the direction of each discussion is examined.

In Chapter 2, the criteria for Korean emotional vocabulary are set. The category of emotions is limited to six emotion types according to the semantic area. We also differentiate four emotional interaction situations where emotional vocabulary functions in parents' emotional socialization behaviors. In addition, we examine the difficulties of marriage immigrants' children's education and reveal the importance of education using emotional vocabulary among marriage immigrants.

In Chapter 3, a learner's demand survey and textbook analysis of emotional vocabulary use education are conducted. The results of a learner's demand survey reveal that marriage immigrants feel high importance in emotional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and that they do not use emotional vocabulary that corresponds to negative emotional type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emotional vocabulary presentation and activity patterns of textbooks among marriage immigrants, we demonstrate that the presented learning emotional vocabulary, lack of dialogue related to emotions with children, and no emotion-related activities dealing with various emotional interaction contexts and emotion types have a negative impact on parent-child relationship.

In Chapter 4, based on the contents examined in Chapters 2 and 3,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for using Korean

emotional vocabulary among marriage immigrants on the intermediate level are presented. As for the educational content, a list of intermediate Korean emotional vocabulary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 functions in emotional interaction situations that can be used is selected. As a teaching plan, a specific instructional model applying the task-oriented teaching method and the TTT model is proposed.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proposes an education plan using Korean emotional vocabulary that focuses on parents' emotional interaction with children, which is an important parental role of marriage immigrant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Marriage Immigrants, Children's Education, Vocabulary Use Education, Emotional Vocabulary, Emotional Vocabulary List, Emoti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Function, Task-Based Teaching Method, TTT Model